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1995, Vol. 5, No. 1, pp. 151~154

<토론3>

“과학영재교육 체제정립”에 대한 토론

이 용 수
(동아일보)

이군현교수는 영재가 나타나는 시기를 절대권력이 도전받는 시기, 이데올로기의 갈등기라고 못하고 이 시기에 창의성이 필요한 과학자들이 배출됐다고 역사적인 사실을 열거하면서 영재의 탄생 환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이런 고난의 시대를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에 도전과 자극을 받도록 인위적인 특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영재교육이라고 정의한 것이 꽤 인상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삶에서 도전과 자극은 중요한 자기개발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 동감한다. 도전과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타고난 우수한 소질도 꽃 피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수가 분석한 도전과 자극을 위한 영재프로그램은 언제나 진리일 수 있는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영재란 과학영재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분야마다 영재가 있을 수 있다. 예능이나 체육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영재성을 발휘하는 경우를 수 없이 보아왔다.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특히 과학분야에서 영재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분야보다 비교적 높은 창의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체계적인 발굴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영재교육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현황을 설명하고 그 과학영재교육체계의 정립방안까지를 제시한 이 교수의 발표는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져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인은 이러한 내용을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교육현장에 있는 일반교육인

영재교육의 문제점과 정책적인 고려점을 부연하려한다.

문제점

1.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

속진제도 없고 누락제도 없는 초등 및 중등교육현장은 피교육의 이름을 빌려 교사나 학생들이 놀기에 낙원인 곳이다. 누락제는 말뿐이고 대부분이 해가 차면 진급한다. 그리고 속진제가 필요한 학생들은 오히려 학년제도가 시간낭비로 이어진다.

이것은 긴 교육시간과 연결된다.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32세가 된다. 이 나이는 외국의 경우 이미 중요한 연구를 깊숙히 하고 있는 층의 나이이다. 노벨수상자 대부분의 나이가 30-40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수업년수는 너무 길다. 거기다가 군대문제가 젊은이들을 괴롭힌다. 한국과학기술원이 속진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김숙희 장관이 시도하고 있는 중등교육에서의 속진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프로그램이 없다.

전국의 초 중 고교에서 국어 과학 수학 외국어 예능 컴퓨터 관한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영재교육은 이름만으로 그치고 있다. 영재교육이란 이름에 국민들은 지나치게 현혹돼 있다.

현재 국내의 수학교육프로그램은 어쩌면 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고등학교의 수학을 대부분의 학생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이해하는 학생은 영재층에 든다. 그래서 영재가 아닌 많은 학생들은 수학을 포기한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도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체육 예술 어학(외국어)분야에서의 영재를 위한 교육도 있다. 외국어 분야는 일반대학입시학원으로 변했다는 교육관계자들의 주장은 옳다. 그리고 기타의 기관들은 기능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교육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 환경적인 요인

서울의 과학고등학교가 생겼을때 당시 교장의 인사는 과학 영재를 어떻게 키울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과학만이 아니라 상과나 법과에서도 1등을 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을 중요한 목표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영재교육이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이를 부추기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데도 모든 면에서 1등을 하는 만능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 영재교육이란 이 교장의 철학은 영재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말이다. 최근 외국어 고등학교가 외국어에 대한 영재를 키우기보다 일반대학입시의 전문학원화하고 있는 것은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의 환경을 대변하고 있다.

영재교육이란 이름을 빌린 이러한 불법성 내지 편의적인 교육환경이 영재를 둔재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교사, 부모가 소신 없다.

만일 어느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나 또는 그 학부모의 자녀가 진실로 과학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 영재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한다면 굳이 어느 대학에 가든지 상관하겠는가. 언젠가 그 학생이 과학이나 기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두각을 나타낼 것이 아닌가. 그 학생이 영재라면, 그리고 그 영재성만 길러주는 교육을 부지런히 한다면 그 결과는 다만 시간문제일뿐일 것이다. 영재를 판단하는 자신이 없기에,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그래서 일반학생이나 다름없는 학생을 만들고 있지 않겠는가. 결국 학부모나 교사의 영재판단의 소신부족에서 영재교육제도는 있고 질은 멍들고 있는 것이다.

5. 보편성과 우열상의 조화가 어렵다.

영재는 칼로 찢든듯 구별지울 수는 없다. 특히 초중등의 교육현장에서는 그렇다. 지나치게 영재만을 떼어놓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열반 편성이란 이름의 사회적인 갈등이 일고 있다. 학교교육 현장속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함으로써 능력에 맞게 재능을 키우는 우월성 교육과 보편성의 교육이 조화를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정책방향

1. 입시제도

능력 재능 학습경험 등을 무시한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의미가 없다. 영재성을 나타낸 결과에 대한 입시의 우선점이 주어져야 한다. 가령 과학올림피아드대회에서의 우승자에 대한 입시특혜가 이에 해당한다.

2. 대학에서의 프로그램 마련

대학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한 특수프로그램은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좋은 오리엔테이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우수한 학생을 스카우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3. 교육시관제도의 확립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사의 확보다. 최고의 대우를 해 주는 교사의 확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정부가 언젠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영재만이 아니라 미래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주체로서 우수한 교사의 확보는 미래정책의 핵심이다.